

당심·민심 모두 잡은 이재명 '독주 체제' 탄력

1·2차 경선 과반 이상 득표 2연승 11일 대구·경북부터 온라인 투표 추석연휴 광주·전남 경선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를 뽑는 세종·충북 경선에서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승하면서 전남 대전·충남 경선에 이어 2연승을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가 첫 번째 순회경선이 치러진 이들 지역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오는 12일 강원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차 슈퍼위크에 참여하는 일 반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64만1922만명으로 전체 선거인단(200만명 가정)의 30%가 남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전체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광주·전남 지역 경선이 민주당 전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경선에서도 호남과 호남 출신 당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호남 민심'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의 선택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투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차 슈퍼 위크가 '기선제압'이라면, 광주·전남·북경선은 '대세 확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 CJB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종·충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54.54%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이낙연(29.72%), 3위 추미애(7.09%), 4위 정세균(5.49%), 5위 박용진(2.22%), 6위 김두관(0.93%) 후보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첫 열린 대전·충남 경선에서 득표율 54.81%로 1위를 차지했고, 2회 연속으로 50%의 득표율을 넘기면서 독주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가 2연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1차 슈퍼 위크 결과에 따라 '독주'와 '역전'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슈퍼위크의 경우 일반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ARS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는 12일 강원지역 순회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면서 "1차 슈퍼위크에서 당심과 민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슈퍼위크는 현장 투표를 비해 훨씬 많은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상당하다. 이번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승을 하거나 과반을 차지한다면 '독주'를 넘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반면, 이낙연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역전에 성공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한다면 반전의 계기도 만들 수 있게 된다.

호남 민심의 향배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추석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은 온라인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투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1차 슈퍼위크는 온라인 투표(8~9일)와 강제 ARS 투표(10~11일), 자발 ARS 투표(12일) 등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은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1표로 합산한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에서 경선을 진행한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11일 대구·경북부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의 현장 투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은 당 선관위 결정대로 현장 투표로 진행했지만, 다음 경선 지역부터는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는 것을 당 선관위에 권고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방역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9일	경기
10일	서울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본경선 (본경선 과반 득표 없을 경우 4~5일 후 결선투표)	

민주 대선후보 본선직행 매직넘버 55만 다음달 3일 '2차 슈퍼위크'서 결판날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가능한 '매직넘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1차 슈퍼위크와 호남지역 경선 이후, 매직넘버의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190만 명의 선거인단이 등록됐다. 1·2차로 모집된 국민·일반당원과 대의원·권리당원까지 186만 명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3차 모집에서 불과 4만~5만 명이 추가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선 경선 선거인단은 애초 전망치였던 250만 명에 못 미치는 22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0%의 투표율을 기준을 삼는다면 투표인원 110만 명의 절반인 55만 명이 '매직넘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재명 지사의 초반 대세론이 확산된다면 경쟁 구도가 악화되면서 흥행에 저조할 수밖에 없어 투표율이 40% 전반에 그치면서 매직넘버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 투표율은 과거(2017년 76.6%, 2012년 56.7%)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충청지역 경선 누적 투표율은 50.2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50만 명 전후가 매직 넘버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양강 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된 가운데 메가급 이슈가 없고 후보 주자가 두각을 나타

내지 못하면서 흥행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 지사의 초반 대세론이 강고해진다 면 오히려 흥행 요소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64만여 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오는 12일의 '1차 슈퍼위크'와 호남지역 경선이 사실상 매직 넘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충청에서 과반 득표한 여세를 몰아 '1차 슈퍼위크'를 압도하고 호남지역 경선에서도 승리한다면 오는 10월 3일 치러지는 2차 슈퍼위크에서 매직넘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7년 경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첫 경선지역인 호남에서 60.2%의 득표율로 압승한 여세를 몰아 결선투표 없이 조기에 경선을 마무리한 바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가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호남지역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10일 최종적으로 치러지는 서울·경기지역 경선에서 결선투표 여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 직행을 상정하는 매직넘버는 1차 슈퍼위크와 호남지역 경선 결과와 연동될 것"이라며 "특히, 1차 선거인단은 각 후보 캠프에서 조직을 동원한 충성도가 높은 표들이 몰려있고 호남 지역 경선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직넘버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OUR BREWERY

오래전 바다였던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소주가 옵니다"

세계 3대 소금으로 완성된
히말라야 핑크솔트 / 신안 토판염 / 안데스 레이크 솔트

SALT 레시피 소주

바다로부터, 보해

BOHAE 광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